

투데이

근로빈곤층 많은 호남경제 '최악'

근로장려세제 지급률 4% 전국 두번째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최근 호남권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률과 어음부도율, 가계부채 증가율 등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7일 광주지방국 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와 전남·북의 근로장려세제 비율은 4%로 제주(5.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국 평균(3%) 보다 높다"고 밝혔다.

지방별 근로장려세제 지급률은 서울청 1.9%, 중부청 3.0%, 부산청 3.2%, 대전청 3.3%, 대구청 3.3% 등이었다.

이처럼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Poor)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호남권 기업 어음부도율은 0.116%로 전국 평균 0.03%의 4배 가까이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호남권 5억원 이상 어음부도율은 0.036%로 전국 평균(0.018%)의 2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말과 비교한 올 8월 현재 호남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46.9%로 전국 평균 37.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호남권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0.7% 증가했지만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81.8%나 늘어났다.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이 많이 증가함으로서 민들의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호남권의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도 47.0%로 전국 37.1%보다 훨씬 높았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세무당국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며 "광주청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정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도시공사 시설 앞에서 열린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개소식'에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현판식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ETRI, 연구원 채용 출신대별 점수 차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동철 의원 "서울대 25점·지방국립대 20점 부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연구원 채용시 학교별 가점제도를 적용해 출신대학별로 응시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ETRI는 가그룹으로 분류된 KAIST·포항공대·서울대는 학교점수가 25점 만점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

나그룹인 35개 대학 출신자는 20점, 다그룹인 그 외 대학 출신자는 15점을 각각 부여했다.

같은 서울대 박사학위자라도 서울대에서 학부를 마친 사람은 25점을 부여한 반면, 연세대 학사 출신은 22점, 동아대 학사 출신은 19점으로 차등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0년간 다그룹 학교 출신 연구원은 492명 중 22명으로 4.5%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근 3년간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못했다"면서 "ETRI에서 서울대·포항공대·KAIST는 성과없이 서울대·연세대·

고려대는 진골, 나머지 대학은 6두 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TRI 기준으로는 국내 최고의 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도 나그룹에 속한다"면서 "연구원의 능력은 대학 출신과 전혀 무관한데도 출신학과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남 ETRI 원장은 "지난 10년간 대학 출신 연구원은 492명 중 22명으로 4.5%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근 3년간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못했다"면서 "ETRI에서 서울대·포항공대·KAIST는 성과없이 서울대·연세대·

고려대는 진골, 나머지 대학은 6두 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TRI 기준으로는 국내

전국 염전콘테스트 전남업체 3곳 '우수'

친환경 염전을 뽑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염전콘테스트에서 신안 'HS병풀염전' 등 전남지역 생산업체 3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18일 "천일염 생산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염전 콘테스트에서 'HS병풀염전'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남지역 3곳이 우수 염전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장평가 등을 통해 신안 신의면 '웰빙 소금밭'이 금상, 영광 염산면 '대흥염전'이 은상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염전에 대해 기본 시장 외에 수도권 지하철에 홍보하고 홍보지를 제작해 우수사례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kroh@kwangju.co.kr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는 것부터 치유 시작"

이희호 여사 '광주트라우마센터' 개소식서 강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유할 트라우마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1층에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민간인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의문사 가족, 불법연행·감금·고문 피해 조작사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트라우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희호 이사장은 "어떤 분은 아픈 과거를 잊자고 말하지만 잊는 것으로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치유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 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계속 될 것"이라며 "진실 규명과 가해자의 사과, 정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초대 센터장은 "늦게나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돼 다행"이라며 "5·18이 다른 나라 민주주의 본보기가 됐듯이 광주가 아시아 트라우마 치유의 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흥 천관산서 24~30일 '통합의학박람회'

통증·신경 진료체험관, 편백 자연체험관 등 운영

'제3회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24~30일 장흥 천관산 일원에서 열린다.

'자연과 인간을 있는 건강 통합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합의학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과 전남한방신입진흥원, 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보완체계의학이 함께 소개되며 전국 유명 의료진이 진료 상담과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의 진료체험관(통증관, 신경관, 피부관, 건강검진관), 음악·미술·재활치료, 동종요법 등이 참여하는 협회단체관 등이 운영된다.

또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알리고 체험하는 보건홍보관, 기능성식품과 의료기기 전시·체험·판매하는 의료산업관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아토피 제품과 천연비누, 천연염색, 편백오일, 편백나무 만들기와 사상체질을 확인하고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시음하는 자연체험관도 마련됐다.

또 오는 28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의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통합의학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덕철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장이 소속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통합의학 선포자인 전세일 차의과학대학 통합의학대학원장, 강승완 서울대의대 교수, 김정하 중앙대의대 교수, 김경수 가톨릭대의대 교수 등 우리나라 통합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대학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이밖에 학술관에서는 박람회기간 중 국내 최고의 명의·명사 7명이 건강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이 인형극으로 이 닦기와 아토피를 주제로 한 '치과에 간 닦용이'·'토끼와 우당탕박사' 연극공연도 걸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李대통령-맥쿼리 유착의혹 다른 '맥코리아' 개봉

오늘부터 광주극장 상영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복마전을 퍼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맥코리아'가 18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봉했다.

광주에서는 19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이 영화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 서울 우면산 터

길, 지하철 9호선 등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운용주식회사(이하 맥쿼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민자사업 투자유치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맥쿼리간의 유착 및 특혜의혹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맥코리아'는 지난 2002년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한국법인을 설립한 맥쿼리가 국내 민자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 1조8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맥

코리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같은 특혜 조건을 부여하고 고금리의 후순위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를 특정 기업의 이윤확보를 위해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특정 민간기

업에 갖다 바치는 것은 물론, 국민은 지나치게 비싼 공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맥쿼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둘러싸고 '운영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을 문제삼은 광주시는 순환도로 운영업체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화에서는 감독인 김형렬씨가 PD로 등장, '광주제2순환도로'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광주극장은 19일 오후 3시30분 개봉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매일 한 차례 상영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 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단,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대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암) 광주 서구 능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